

한국어판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개발

박 선 응^{1†} 김 혜 민¹⁾ 이 준 배^{1,2)} 문 현¹⁾

¹⁾고려대학교

²⁾가톨릭관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Kaufman 등(2015)이 개발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단축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2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는 확고한 정체성,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을 통해 정체성의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본 척도는 심리측정적 속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문제가 있는 문항들을 삭제하여 12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연구를 통해 원본 척도와 단축형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또, 임종민 등(2022)이 제시한 2요인 모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축형 3요인 모형 간 모형 적합도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단축형 3요인 척도는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또, 세 개의 하위요인은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정체성 발달의 여러 차원, 우울, 성격 장애 등의 변인과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방향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주요어: 정체성, 자기정체성, 정체성 발달,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park@korea.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 즉 자기정체성(self-identity, 이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보통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시작되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끝나지는 않는다.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인 만큼(Erikson, 1968), 웰빙의 여러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은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자존감, 우울, 심리적 장애 등과 관련이 높았다(문현 등, 2022; 박선웅, 박예린, 2019; Adler et al., 2016; Bogaerts et al., 2018, 2023; Luyckx et al., 2008; Marcia, 1993; Park et al., 2023). 그런 만큼 연구자들은 정체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면접, 서사문, 자기보고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체성 측정의 여러 도구 중 Kaufman 등(2015)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인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의 한국어판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자기보고식 정체성 척도

정체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대부분은 Marcia(1966)가 제시한 정체성 지위 이론의 패러다임하에서 탐색(exploration)¹⁾과 전념(commitment)이라는 개념의 측정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신행우, 2001; Balistreri et al., 1995). 이런 관점에서 정체성 형성이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는 과정이다. 탐색과 전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측정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연구자들은 Marcia(1966)가 제시한 탐색 후 전념이라는 과정이 실제 정체성 발달 과정을 잡아

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주장해왔다(Meeus, 2018).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Luyckx 등(2008)이 개발한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이다. 이들은 탐색과 전념이라는 두 차원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 그중 두루 탐색(exploration in breadth)은 여러 가지 대안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과정, 전념 생성(commitment making)은 두루 탐색 후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는 과정이다. 이 두 과정은 Marcia(1966)가 제시한 정체성 형성의 과정과 유사하다. 하지만, Luyckx 등(2008)은 일단 하나의 대상에 대해 전념이 생성되고 나면 이후 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깊이 탐색(exploration in depth) 과정이 일어나고, 깊이 탐색한 후에도 그 대상에 대한 신념이 유지될 때 전념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람직한 정체성 발달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이 네 과정과 별도로 Luyckx 등(2008)은 실질적인 탐색 과정에 몰입하지 않은 채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막연하게 걱정만 하는 과정인 반추적 탐색(ruminative exploration)을 추가하였다. 최근 정체성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 척도는 Park 등(2023)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특징

Luyckx 등(2008)이 개발한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는 탐색과 전념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탐색과 전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체성 발달의 여러 과정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Kaufman 등(2015)은 정체성 발달 과정을 측정하기보다는 정체성이 정신병리와 갖는 관련성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새로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PA, 2013, DSM) 5판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전 판에서 정체성

1) Marcia(1966)가 원래 사용했던 용어는 위기(crisis)였지만, 이후 Matteson(1977)의 제안에 따라 탐색(exploration)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문제가 경계선 성격장애에만 국한되어 논의되었던 것과 달리, 5판에서는 모든 성격장애의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Kaufman 등(2015)은 발달 및 성격심리학은 물론 임상심리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체성 척도인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은 정체성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자기연속성을 유지하는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정신병리와 가장 관련이 높은 개념이다. 교란된 정체성이 어떤 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정체성 결여는 자기상(self-image)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 Kaufman 등(2015)은 정체성 결여라는 요인을 지금까지 정체성 문헌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 요인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가 기존의 정체성 척도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세 하위요인과 정신병리 변인들 간의 상관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울, 경계선 성격장애, 정서조절곤란, 정신장애 증상들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정체성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정체성 결여의 상관계수가 더 컸다(Bogaerts et al., 2018, 2023; Kaufman et al., 2015, 2019; Vanderveren et al., 2021). 다음으로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의 경

우, 긍정적인 발달을 측정하는 네 요인(두루 탐색, 깊이 탐색, 전념 생성, 전념 동일시)은 확고한 정체성과는 정적,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교란된 정체성과는 부적 상관의 유의성이 다소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윤가영 등, 2022; Bogaerts et al., 2018). 반면,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반추적 탐색은 확고한 정체성과는 부적,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와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는 약물중독으로 치료를 원하는 집단(Kaufman et al., 2019),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집단(Bogaerts et al., 2023)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초기 성인기에 있는 일반적인 성인(Bogaerts et al., 2018, Vanderveren et al., 2021)과 고등학생(Bogaerts et al., 2021)에게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윤가영 등, 2022)에서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학업성취압력과 심리적 웰빙, 우울 등을 묻는 척도 및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3개 하위요인), 그리고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5개 하위요인)에 응답하였다.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받은 참여자일수록 심리적 웰빙은 낮고 우울은 높았는데, 이 관계를 총 8개의 정체성 관련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렬매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웰빙과 우울 모두에서 정체성 결여만이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체성 결여라는 새로운 요인, 그리고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가 향후 정체성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항 삭제 및 단축형 척도 개발의 필요성

Kaufman 등(2015)의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가 정체성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 저자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척도의 문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심리측정적

속성에 관한 문제로, 척도의 모형 적합도 지수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Kaufman 등(2015)의 최초 척도 개발 연구에서 보고된 적합도 지수는 CFI = .83, RMSEA = .07, SRMR = .07로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적합도 기준에 대해서는 표 1 참조). 후속 연구에서의 모형 적합도는 더 안 좋게 나타났다. 한 예로, Bogaerts 등(2023)의 타당화 연구에서 27문항 모두를 포함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의 적합도 지수는 CFI = .79, RMSEA = .08이어서 최종적으로 네 문항을 삭제하였다. 같은 이유로 Bogaerts 등(2018)의 연구에서는 두 문항, Bogaerts 등(2021)의 연구에서는 네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 세 개의 후속 연구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항은 겹치는 문항을 제외하면 총 여섯 문항에 달한다.

둘째, Kaufman 등(2015)이 제시한 하위요인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Kaufman 등(2015, 130쪽)은 정체성 결여 하위요인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simply not knowing who one is)”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공허감이 느껴지거나 영혼이 망가져 형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I no longer know who I am.”과 같은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상태인 확고한 정체성 하위요인의 문항 중 “I am good.”과 같은 문항은 정체성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인 자존감에 더 가깝다.

셋째, 정체성 발달이 청소년 시기부터 대두되는 주제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문항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답변하기에 어색하다. 예를 들어, “When I look at my childhood pictures I feel like there is a thread connecting my past to now.”와 같은 문항은 성인으로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인데, 여전히 아직 어린 상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하위요인별 문항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확고한 정체성은 10문항, 교란된 정체성은 11문항, 정체성 결여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척도의 하위요인은 보통 하나의 회귀분석에서 같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항 수의 차이가 곧 예측력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수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성태제, 김경희, 1993; Andrich, 2016). 실제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거나 단축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하위요인 간 문항 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예, 김용석, 2020; Richins, 2004; Robitschek et al., 2012).

마지막 이유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이유이다. 지난 몇십 년 간 한국의 대규모 패널 조사에서 정신건강 및 그 심리적 예측변인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역되거나 개발된 정체성 관련 척도들은 적게는 25문항(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 Park et al., 2023)에서 많게는 62문항(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박아청, 2003)이나 64문항(자아정체성 지위 척도; 신행우, 2001)에 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패널 조사에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패널 조사는 물론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형 정체성 척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임종민 등(2022)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 개념과 정체성 척도를 번역한 논문을 출판하였다. 하지만, 이 출판본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우선, Kaufman 등(2015)이 척도를 개발할 때 후보 30문항 중 3문항을 삭제하고 2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만들었는데, 임종민 등(2022)은 삭제된 3문항을 포함하는 대신 다른 여섯 문항을 삭제하여 24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다. 적합도를 나타

내는 CFI, RMSEA, SRMR 지수가 3요인 모형의 경우 .81, .08, .07이었고,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를 합친 2요인 모형의 경우 .82, .09, .07이었다. 이러한 결과값에 대해 임종민 등(2022)은 “각 요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문항이 포함되어 의미가 중첩되는 문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28쪽), 단축형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중략) 요인 구조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8쪽) 단지 근소하게 적합도 지수가 더 좋았다는 이유로 원래 세 개의 하위요인이었던 척도를 두 개의 하위요인(자기 연속성과 안정성 요인 및 자기 비일관성과 통합 실패 요인)으로 축소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가 정체성 연구에 중요하게 공헌하는 영역이 단순히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자기상(self-image) 자체가 부재한 상태를 측정하는 정체성 결여를 별도의 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는데, 두 요인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 장점이 사라졌다. 나아가 척도의 하위요인이 바뀌면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여 진행되는 외국의 연구들과 비교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임종민 등(2022)의 연구와는 별도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Kaufman 등(2015)이 개발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한국어판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에 있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연구 2에서는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일반인, 연구 3에서는 고등학생을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를 포함한 여러 척도들에 응답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27문항으로 구성된 원본 척도, 3요인으로 구성된 12문항 단축형 척도, 2요인으로 구성된 12문항 단축형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고, 정신건강의 여러 지표와 기존 정체성 척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함으로써 준거,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기출판된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여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원본 27문항과 단축형 12문항을 비교하는 것이다. 윤가영 등(2022)이 자체적으로 번역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를 사용한 논문을 출판하기는 하였으나,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해당 저자들의 승인하에 자료를 받아 원본과 단축형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의 연구주제로 끌어들이었던 Erikson(1968)은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결해야 하는 발달과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과업의 성취, 즉 정체성 형성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였다(문현 등, 2022; 박선웅, 박예린, 2019; Luyckx et al., 2008; Marcia, 1993; Park & Moon, 2022; Park et al., 2023). 이에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절차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 110명을 모집하였다(남성 46명, 여성 64명). 참여자들의 나이는 19세에서 25세였고, 평균 나이는 22.28세(표준편차 = 1.95)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설문
에 응답한 후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측정 도구

자기개념과 정체성

참여자들은 27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개념
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를 윤가영 등(2022)이 한국
어로 번역한 문항에 답변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이 단축형 척도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항 선별 및 축소 과정을 거쳤다. 보통 척도의
단축화 과정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상향
식(bottom-up)으로 이루어지지만(예, 최정욱 등,
2021),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이유로
하향식(top-down)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존 연구에서 요인적재값이 낮거나 오차
항 간 상관관이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가 되었던
문항을 삭제하였다(Bogaerts et al., 2018, 2021,
2023). 그리고 각 요인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
하지 않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요인 간 문항 수를 통일하면서 간명하게 개
념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적의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체성 연구에 매진해온 심리학
교수 한 명과 대학원생 한 명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각 하위요인별로
네 문항씩을 선별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
답했다. 원본 문항과 단축형 문항의 내적합치도
및 기술통계는 표 2에, 단축형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웰빙

참여자들의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하고 신희성 등(2017)이 번역한
심리적 웰빙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alpha = .95$)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을 사용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높은 심리적 웰빙을 나타낸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내게 주어진
많은 임무를 잘 해내고 있다.”와 “시간이 지나
면서 한 개인으로서 많이 발전했다고 느낀다.”가
있다.

삶의 만족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열
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임영진(2012)이 한국어로
번역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가 있다.

우울

참여자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역
학연구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전경구와 이민규
(1992)가 번역한 20문항($\alpha = .92$)을 사용했다. 참
여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각 문항과 관련한
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4점 척도(1 = 거의
드물게; 4 = 대부분)로 나타내었다. 예시 문항으
로는 “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가 있다.

분석 계획

27문항 3요인으로 구성된 원본 척도, 12문항
3요인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 그리고 12문항
2요인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 적합

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네 가지 지표, 즉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과 χ^2 값을 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Mplus 8.9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해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우울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결과 및 논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에 사용되는 지수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어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지수와 기준을 종합해 봤을 때 비교적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는 CFI, RMSEA, SRMR, χ^2 이고, 각 지수를 활용한 적합도 기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강현철, 2013; 김수영, 2016). χ^2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별하지

만, χ^2 값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가설이 기각된다고 하여도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7문항이 모두 사용된 원본 척도의 모형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는 기실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를 다른 표본에 적용했던 최근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Bogaerts et al., 2018, 2021, 2023). 반면, 12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의 경우 CFI, RMSEA, SRMR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좋거나 양호한 수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값은 크게 줄어들이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종민 등(2022)은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하위요인을 하나로 묶어 2요인 모형으로 척도를 구성했다. 이에 두 하위요인을 한 요인으로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본 결과,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2요인 단축형 모형은 엄밀한 의미에서 3요인 모형에 내재된 모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몇몇 경로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내재 모형에 기반한 χ^2 차이검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요인 모형에서 요인 분산을 모두 1로 고정하고,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기준과 분석 결과

구 분		CFI	RMSEA	SRMR	χ^2	df	p
모형 적합도 기준	좋음	.95 이상	.05 이하	.05 이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양호	.90 ~ .95	.05 ~ .08	.05 ~ .08			
연구 1 (대학생)	원본	.76	.10	.10	648.42	321	< .001
	단축형 (3요인)	.96	.06	.06	72.60	51	.025
	단축형 (2요인)	.91	.09	.07	99.14	53	< .001
연구 2 (19~29세 성인)	원본	.76	.09	.09	1014.45	321	< .001
	단축형 (3요인)	.92	.08	.05	140.95	51	< .001
	단축형 (2요인)	.90	.09	.06	174.73	53	< .001
연구 3 (고등학생)	단축형 (3요인)	.95	.07	.05	140.32	51	< .001
	단축형 (2요인)	.93	.08	.06	175.58	53	< .001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간의 공분산을 1로 제약하고, 확고한 정체성과 교란된 정체성 간의 공분산과 확고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간의 공분산이 같아지도록 제약하면 2요인 모형의 적합도와 같아진다. 2요인의 χ^2 값은 99.14이고 3요인의 χ^2 값은 72.60이어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chi^2 = 26.54, p < .001$. 다시 말해, 3요인의 모형의 적합도가 2요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더 우수하였다.

내적합치도 및 상관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내적합치도의 경우 원본이 단축형보다 조금 더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크론바흐 알파값이 문항의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단축형의 경우에도 적은 문항 수에도 불구하고 내적합치도 값은 양호한 편이었다.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 우울과의 관련성에서는 원본과 단축형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은 확고한 정체성과는 정적,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의 관계에 있었다. 우울은 확고한 정체성과

는 부적,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종합하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원본과 단축형은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포함했던 다른 변인들과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의 경우, 원본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여러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단축형은 그 기준들을 충족하였다. 나아가 2요인 단축형에 비해서는 3요인 단축형이 더 우월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3요인 단축형으로 선별된 문항은 적은 문항으로도 원래의 구성개념을 잘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원본과 단축형의 모형 적합도 및 준거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2

연구 1을 통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원본 27문항에 비해 단축형 12문항이 더 뛰어난 모형 적합도를 보였고, 타당도 검사를 위해 측정된 다른 척도, 구체적으로 심리적 웰빙과 삶

표 2. 원본과 단축형 척도의 기술통계 및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1, $N = 110$)

구 분	α	M	SD	확고한 정체성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	
				원본	단축형	원본	단축형	원본	단축형
확고한 정체성 (원본)	.84	4.87	0.88	-	.89**	-.16	-.31**	-.60**	-.57**
확고한 정체성 (단축형)	.80	4.95	1.04		-	-.26**	-.39**	-.60**	-.60**
교란된 정체성 (원본)	.84	3.21	0.92			-	.94**	.59**	.59**
교란된 정체성 (단축형)	.76	2.93	1.13				-	.65**	.64**
정체성 결여 (원본)	.87	3.09	1.27					-	.97**
정체성 결여 (단축형)	.81	3.29	1.33						-
심리적 웰빙	.95	4.59	0.93	.72**	.72**	-.35**	-.46**	-.74**	-.68**
삶의 만족	.90	4.18	1.31	.66**	.63**	-.21*	-.30**	-.65**	-.59**
우울	.92	1.79	0.53	-.40**	-.45**	.26**	.33**	.56**	.52**

* $p < .05$. ** $p < .01$.

의 만족, 그리고 우울 척도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새로운 표본을 모집하여 이러한 결과를 반복검증하고자 하였다. Kaufman 등(2015)이 척도를 개발할 때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변인들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높은 변인들이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Kaufman 등(2015)이 사용했던 준거변인들을 사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절차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19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 성인을 모집하였다. 평균 나이는 25.38세이었고(표준편차 = 2.91), 남성은 147명, 여성은 153명이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저자들의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측정 도구

자기개념과 정체성

참여자들은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Kaufman et al., 2015)에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연구 1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원본 문항과 단축형 문항의 내적합치도 및 기술통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orey(1991)가 개발하고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번역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척도의 예시 문항으로는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 “매우 친한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등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정서 조절 곤란

참여자의 정서 조절 곤란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조용래(2007)가 번역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 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을 포함하는 여섯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충동통제곤란),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등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1 = 거의 그렇지 않다; 5 =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

참여자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94)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광일 등(1984)이 번역하고 임규혁(1997)이 타당화하였다.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신체화(somatization),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적대감(hostility), 공포불안(phobic anxiety), 편집증(paranoic ideation), 정신증(psychoticism)의 아홉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머리가 아프다.”(신체화), “신경이 예

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불안),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강박증) 등이 있다. 참여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각 문항의 증상을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5점 척도(1 = 전혀 없다; 5 = 아주 심하다)로 응답하였다.

분석 계획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27문항 3요인으로 구성된 원본 척도, 12문항 3요인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 그리고 12문항 2요인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를 대상으로 Mplus 8.9를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네 가지 지표, 즉 CFI, RMSEA, SRMR과 χ^2 값을 구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해 계산하였고, 각 하위요인이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정서 조절 곤란의 하위 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의 하위 요인과 각각 어떤 상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및 논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본과 단축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원본의 경우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형 적합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반면, 3요인 단축형 척도는 좋거나 양호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2요인 단축형 척도와 3요인 단축형 척도의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2요인의 χ^2 값은 174.73이고 3요인의 χ^2 값은 140.95이어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chi^2 = 33.78$, $p < .001$. 다시 말해, 3요인의 모형의 적합도가 2요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더 우수하였다.

내적합치도 및 상관분석 결과

원본과 단축형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보면, 원본 척도가 다소 더 좋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표 3), 이는 크론바흐 알파값이 문항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와 준거변인들과의 관계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본과 단축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확고한 정체성은 경계선 성격장애, 정서조절곤란의 총점 및 하위요인, 간이정신진단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 모두 부적인 관계에 있었고, 원본과 단축형 간의 상관계수값은 거의 유사하였다. 반면,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준거변인들과 모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는데, 교란된 정체성에 비해서는 정체성 결여가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값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세 개의 하위요인과 세 개의 준거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Kaufman 등(2015, 표 3)의 척도 개발 논문에서 나타난 상관계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구 3

연구 1과 2를 통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원본과 단축형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원본과 단축형이 다른 변인들과 갖는 상관계수값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모형 적합도는 단축형이 원본에 비해 더 뛰어났다는 것이다. 또, 임종민 등(2022)이 제시한 2요인 모형에 비해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3에서는 단축형만을 사용하였다. 연구 1과 2의 한계점은 두 연구 모두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사람들만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는 점이다. 정체성 형성 과정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축형 척도가 여전히 좋은 적합도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 3에서는 고

표 3. 원본과 단축형 척도의 기술통계 및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2, N = 300)

구 분	α	M	SD	확고한 정체성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	
				원본	단축형	원본	단축형	원본	단축형
확고한 정체성 (원본)	.80	3.52	0.54	-	.86**	-.19**	-.28**	-.56**	-.51**
확고한 정체성 (단축형)	.72	3.63	0.61		-	-.24**	-.33**	-.56**	-.53**
교란된 정체성 (원본)	.78	2.48	0.54			-	.89**	.56**	.58**
교란된 정체성 (단축형)	.70	2.32	0.71				-	.61**	.62**
정체성 결여 (원본)	.87	2.29	0.82					-	.97**
정체성 결여 (단축형)	.82	2.43	0.86						-
경계선 성격장애	.89	2.76	0.57	-.36**	-.34**	.50**	.49**	.60**	.58**
정서조절곤란 총점	.95	2.34	0.64	-.47**	-.45**	.47**	.49**	.64**	.60**
충동통제곤란	.90	2.04	0.90	-.33**	-.31**	.44**	.43**	.52**	.48**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82	2.56	0.64	-.55**	-.55**	.21**	.26**	.44**	.42**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90	2.15	0.92	-.23**	-.23**	.44**	.46**	.49**	.47**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80	2.14	0.87	-.29**	-.32**	.47**	.47**	.55**	.54**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85	2.12	0.88	-.36**	-.35**	.39**	.39**	.52**	.49**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87	2.80	1.05	-.29**	-.23**	.25**	.25**	.38**	.36**
간이정신진단 총점	.99	1.64	0.63	-.37**	-.34**	.34**	.39**	.58**	.55**
신체화	.91	1.59	0.64	-.27**	-.25**	.28**	.32**	.46**	.43**
강박증	.87	1.90	0.72	-.40**	-.37**	.29**	.35**	.57**	.55**
대인예민성	.88	1.83	0.77	-.37**	-.32**	.32**	.39**	.54**	.52**
우울	.93	1.82	0.81	-.38**	-.32**	.31**	.37**	.58**	.55**
불안	.92	1.58	0.73	-.27**	-.27**	.30**	.35**	.50**	.48**
적대감	.86	1.48	0.66	-.38**	-.34**	.30**	.32**	.51**	.47**
공포불안	.84	1.35	0.57	-.29**	-.27**	.31**	.34**	.44**	.42**
편집증	.85	1.54	0.73	-.34**	-.30**	.31**	.34**	.51**	.50**
정신증	.90	1.41	0.63	-.34**	-.31**	.35**	.38**	.56**	.55**

* $p < .05$. ** $p < .01$.

등학생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정체성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Luyckx et al., 2008)를,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용 긍정적 정

신건강 척도(김진영 등, 2020)를 포함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2022학년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한 AISW 교육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 포함된 고등학생 360명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은 100명, 2학년은 114명, 3학년은 146명이었으며, 남자가 165명, 여자가 195명이었다. 참여자들은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모집되었고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측정 도구

자기개념과 정체성

참여자들은 연구 1과 2에서 사용했던 단축형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Kaufman et al., 2015) 12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내적합치도 및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정체성 발달 차원

참여자들의 정체성 발달의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Luyckx et al., 2008)를 Park 등(2023)이 한국어로 번역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개의 하위 영역에 각각 5 문항씩 있어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루 탐색은 전념을 생성하기 전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관하여 여러 대안을 찾고 비교하는 과정으로, 예시 문항으로는 “나에게 어울릴 만한 다양한 삶의 방식들에 대해 고려한다.”가 있다. 전념 생성은 탐색한 여러 대안 중에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예시 문항으로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가 있다. 깊이 탐색은 전념을 생성한 후 전념 대상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으로,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결정한 미래 계획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부합하는지 생각한다.”가 있다. 전념 동일시는 전념을 생성한 대상에 대해

더 깊이 탐색하여 전념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예시 문항으로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확신한다.”가 있다. 마지막으로, 반추적 탐색은 실질적인 탐색 없이 만성적으로 자신에 대한 고민만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나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청소년 정신건강 2요인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김진영 등, 202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신건강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는 Keyes(2007)의 정신건강 2요인 모형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정신적 웰빙 하위요인과 14문항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부적응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정신적 웰빙의 예시 문항으로는 “생활이 만족스러웠다.”가 있고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이를 자주 경험했는지 1점(전혀 없음)에서 6점(매일) 사이로 응답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의 예시 문항으로는 “밤에 편안하게 잠들기가 어렵다.”가 있고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분석 계획

12문항 3요인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와 12문항 2요인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Mplus 8.9를 사용하였고,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네 가지 지표, 즉

CFI, RMSEA, SRMR과 χ^2 값을 구하였다. 각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해 계산하였다. 각 하위요인이 정신건강과 갖는 관련성 및 기존 정체성 척도와 어떤 상관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축형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지표 모두 양호하였다(표 1). 연구 1과 2에서와 마찬가지로 2요인 단축형 척도와 3요인 단축형 척도의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2요인의 χ^2 값은 175.58이고 3요인의 χ^2 값은 140.32이어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chi^2 = 35.26, p < .001$. 다시 말해, 3요인의 모형의 적합도가 2요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더 우수하였다.

내적합치도 및 상관분석 결과

단축형 척도의 세 개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보면, .75에서 .8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표 4).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확고한 정체성은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차원(두루 탐색, 전념 생성, 깊이 탐색, 전념 동일시)과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 차원(반추적 탐색)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대로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의 경우 긍정적 차원과는 부적으로, 부정적 차원과는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건강 2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고한 정체성은 정신적 웰빙과는 정적, 심리적 부적응과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고,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정신적 웰빙과는 부적, 심리적 부적응과는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고등학생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에도, 단축형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는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표 4. 단축형 척도의 기술통계 및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3, $N = 360$)

구 분	α	M	SD	확고한 정체성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
확고한 정체성	.75	3.60	0.68	—	-.21**	-.41**
교란된 정체성	.76	2.73	0.84	—	—	.75**
정체성 결여	.85	2.62	0.93	—	—	—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						
두루 탐색	.85	3.62	0.72	.65**	-.24**	-.34**
전념 생성	.90	3.30	0.87	.56**	-.12*	-.21**
깊이 탐색	.81	3.42	0.74	.59**	-.16**	-.26**
전념 동일시	.86	3.36	0.77	.64**	-.21**	-.32**
반추적 탐색	.72	3.21	0.73	-.12*	.39**	.45**
청소년 정신건강 2요인						
정신적 웰빙	.94	3.91	0.96	.60**	-.22**	-.41**
심리적 부적응	.87	2.55	0.78	-.28**	.59**	.68**

* $p < .05$. ** $p < .01$.

고,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한 변인들과도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두 정체성 척도 하위요인 간 탐색적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지만, 자기상이 존재하지 않는 정체성 결여와 자기상이 주변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란된 정체성이 고등학생의 정체성 발달 과정에서 서로 구분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가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두루 탐색, 전념 생성, 깊이 탐색, 전념 동일시)과 각각 어떤 상관을 갖는지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5). 먼저 1학년 자료만 따로 분석한 결과,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모두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유의한 상관을 갖지 않았다. 2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교란된 정체성은 여전히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체성 결여는 깊이 탐색($r = -.18, p = .050$)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학년의 경우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모두 네 가지 요인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정체성 형성 과정이 막 시작하는 시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체성

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교란된 상태이든 결여된 상태이든 관계없이 긍정적 발달 과정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이제 성인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3학년 시기는 정체성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변인 모두 정체성의 긍정적 발달 과정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을 수 있다. 2학년의 경우 정체성 결여는 정체성의 긍정적 발달 과정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나 교란된 정체성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 시기에는 주변에 따라 휩쓸리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연구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탐색해 본 결과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고,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를 모집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Kaufman 등(2015)이 개발한

표 5.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와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차원 간 학년별 상관관계

학년	변인	상관계수			
		두루 탐색	전념 생성	깊이 탐색	전념 동일시
1학년 (n = 100)	교란된 정체성	.01	.09	.06	.08
	정체성 결여	-.15	.02	-.06	-.03
2학년 (n = 114)	교란된 정체성	-.13	-.05	-.03	-.14
	정체성 결여	-.28**	-.23*	-.18	-.35**
3학년 (n = 146)	교란된 정체성	-.43**	-.25**	-.35**	-.41**
	정체성 결여	-.47**	-.32**	-.43**	-.46**

* $p < .05$. ** $p < .01$.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단축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Marcia(1966)의 정체성 지위 이론이 발표된 이후 오랜 기간 정체성 연구는 정체성 지위를 구분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범주적 측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정체성 발달의 여러 측면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체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는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Luyckx et al., 2008)와 함께 그 흐름의 선두에 있는 척도이다. 특히 이 척도는 정체성 문제를 성격장애의 중요한 지표로 다루기 시작한 DSM 5와 발맞추어 자기상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인 정체성 결여를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정체성이라는 주제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향후 정체성 연구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가 정체성 연구에서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은 다소 좋지 않았다. 이 척도를 여러 집단에 타당화하였던 선행 연구들에서는 27개의 문항 중 몇몇 문항이 삭제된 후에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Bogaerts et al., 2018, 2021, 2023). 비록 임종민 등(2022)이 이 척도를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였기는 하였으나, 원래 3요인이었던 척도를 2요인으로 제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저자들 스스로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단축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단축형 척도의 개발은 자료분석에 기반한 상향적 접근을 주로 사용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문항 및 이론과의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항을 사전에 삭제하는 방식의 하향적 접근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연구 1), 초기 성인기 성인(연구 2), 고등학생(연구 3)을 참여자로 모집하여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27문항의 원본 척도는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반면, 12문항의 단축형 척도는 그 기

준들을 충족하였다. 또, 임종민 등(2022)이 제시한 2요인 모형보다 원저자인 Kaufman 등(2015)이 제시한 3요인 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축형 3요인 척도는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포함되었던 변인들과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방식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확고한 정체성은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 등 정신건강의 긍정적 측면과는 정적 상관을, 우울과 성격장애 등 부정적 측면과는 부적 상관을 가졌다. 반면,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정신건강의 긍정적 측면과는 부적 상관, 부정적 측면과는 정적 상관을 가졌다.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고한 정체성은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두루 탐색, 전념 생성, 깊이 탐색, 전념 동일시)과는 정적으로, 부정적 측면(반추적 탐색)과는 부적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긍정적 측면과는 부적적으로, 부정적 측면과는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처럼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가 다른 변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임종민 등(2022)이 3요인이었던 척도를 2요인으로 수정했던 결정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는 원래대로 3요인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2요인과 3요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세 연구 모두에서 일관되게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뛰어나게 나왔다. 추가로, 임종민 등(2022)이 합쳤던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하위요인이 확고한 정체성과 갖는 상관이 서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 확고한 정체성과 교란된 정체성 간의 상관계수는 $-.39$ 이었고, 확고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간의 상관계수는 $-.60$ 이었는데, 이 두 상관계수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z = 3.07$, $p = .002$.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 2($z = 4.51$, $p < .001$)와 연구 3($z = 5.69$, $p < .001$)에서도 두 상관계수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Kaufman 등(2015)이 척도를 개발할

때 교란된 정체성은 자기상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상태를, 정체성 결여는 자기상 자체가 부재한 상태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이 두 하위요인이 확고한 정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분되는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은 두 하위요인이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단축형 척도의 개발 과정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한계는 임종민 등(2022)의 번역본에 대한 참조 없이 윤가영 등(2022)의 번역본에만 의지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두 논문의 출판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결과로, 본 저자들이 임종민 등(2022)의 번역본을 확인한 것은 이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 끝난 이후였다. 하지만, 두 번역본의 문항을 비교해 본 결과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축형 문항들은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단축형의 모형 적합도를 한국인을 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것 역시 한계라 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대학생,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일반인, 고등학생 등 다양한 표본을 모집하였고, 이로부터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축형 3요인 척도가 외국인을 상대로도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미 원본 척도의 타당화를 다양한 표본을 상대로 살펴본 연구가 많은 만큼(Bogaerts et al., 2018, 2021, 2023), 이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원본과 단축형 척도의 모형 적합도와 타당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 연구를 통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단축형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척도를 향후 대규모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항은 박아청(2003)이 개발한 척도에서 선별된 8문항이다. 박아청(2003)은 직업, 종교, 대인관계 등 세부적인 영역을 구분하여 정체성을 측정했던 초기 자기보고식 척도들(예, Adams et al., 1979; Balistreri et al., 1995)을 규범 삼아 8개의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고,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친밀성)나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목표지향성)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하위영역을 구분하면 한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이 불일치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구체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된 방식으로 묻는 추세이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역시 이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단축형 척도가 정체성 연구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12문항으로 간결하게 제작된 만큼 향후 대규모 패널조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단축형은 원척도에 비해 더 뛰어난 모형 적합도를 보이면서도 다른 변인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 임종민 등(2022)의 번역본에서 제시한 2요인 모형과 달리 원본(Kaufman et al., 2015)과 같은 3요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요인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 연구와의 비교작업이 더 수월할 것이다. 정체성은 신분으로 대표되는 사회, 즉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답이 있던 사회에 비해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이다(McAdams, 1996).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본 척도의 출판을 통해 향후 한국 내에서 정체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저자 소개

박선웅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체성과 동기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정체성의 심리학>이 있다.

김혜민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문화사회성격심리 전공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정체성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준배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박사과정으로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양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사과정(학석사연계) 학생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 전생애 인간발달, 나이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 개인차 등이 있다.

참고문헌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53-668.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 출판부.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학지사: 서울.

김용석 (2020). 청소년 도박문제 보호·위험요인 척도 개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8*(4), 34-66.

김진영, 문기범, 고영건 (2020).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4), 823-834.

문현, 이다예, 김소을, 박선웅 (2022). 심리적 웰빙에 대한 서사정체성의 충분타당도: McAdams의 성격 3수준 이론을 중심으로. *한*

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1), 1-24.
<https://doi.org/10.21193/kjspp.2022.36.1.001>

박선웅, 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2.001>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성태제, 김경희 (1993). 문항수, 문항난이도, 문항 변별도 변화에 따른 신뢰도 계수와 검사정 보합수의 변화. *교육평가연구, 6*, 123-154.

신행우 (2001).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EOM-EIS2)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37-152.

신희성, 김태익, 박유빈, 박선웅 (2017).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 *보건사회연구, 37*(3), 368-39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3.368>

윤가영, 이준배, 박선웅 (2022).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29-553.
<http://dx.doi.org/10.20406/kjcs.2022.11.28.4.529>

임규혁 (1997).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의 심리측정학적 재조명: 확인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1*(1), 157-189.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임종민, 이종환, 장문선 (2022). 한국판 자기 개념 및 정체감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9*(1), 1-35.
<https://doi.org/10.21509/KJYS.2022.01.29.1.1>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최정옥, 한여울, 박두진, 최기홍, 서동기 (2021). 한국형 다차원 성격검사 단축형(Bright and Dark Personality Inventory-Short Form: BDPI-SF)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1), 43-67.
<https://doi.org/10.21193/kjspp.2021.35.1.003>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7(1), 259-271.
- Adams, G. R., Shea, J., & Fitch, S. A. (1979).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assessment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2), 223-237.
<https://doi.org/10.1007/bf02087622>
- Adler, J. M., Lodi-Smith, J., Philippe, F. L., & Houle, I. (2016). The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well-being: A review of the field and recommendation for the fu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0, 142-175.
<https://doi.org/10.1177/108886831558506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drich, D. (2016). Components of variance of scales with a bifactor subscale structure from two calculations of α .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35(4), 25-30.
- Balistreri, E., Busch-Rossnagel, N. A., & Geisinger, K. F. (199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18(2), 179-192. <https://doi.org/10.1006/jado.1995.1012>
- Bogaerts, A., Claes, L., Buelens, T., Gandhi, A., Kiekens, G., Bastiaens, T., & Luyckx, K. (2021).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in adolescen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5), 377-387.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623>
- Bogaerts, A., Claes, L., Verschuere, M., Bastiaens, T., Kaufman, E. A., Smits, D., & Luyckx, K. (2018). The Dutch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 Factor structure and associations with identity dimensions and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3, 56-64.
- Bogaerts, A., Luyckx, K., Bastiaens, T., Sleuwaegen, E., Berens, A., & Claes, L. (2023).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in pati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A psychometric evaluation and associations with identity processes, core domains of self-functioning, and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ssessment*, Advance online publication.
- Derogatis, L. R. (1994).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3rd ed.). Minneapolis: NCS Pearson.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 Kaufman, E. A., Cundiff, J. M., & Crowell, S. E. (2015). Th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validation of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 A self-report assessment of clinical identity disturbanc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7, 122-133.
<https://doi.org/10.1007/s10862-014-9441-2>
- Kaufman, E. A., Puzia, M. E., Crowell, S. E., & Price, C. J. (2019). Replication of the Self-

- 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 among a treatment-seeking sample. *Identity, 19*(1), 18-28. <https://doi.org/10.1080/15283488.2019.1566068>
- Keyes, C. L. M. (2007). Promoting and protecting mental health as flourishing: A complementary strategy for improving national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62*(2), 95-108. <https://doi.org/10.1037/0003-066X.62.2.95>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https://doi.org/10.1016/j.jrp.2007.04.004>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https://doi.org/10.1037/h0023281>
- Marcia, J. E. (1993). The status of the statuses: Research review.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 22-41). New York: Springer-Verlag.
- Matteson, D. R. (1977). Exploration and commitment: Sex differences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use of identity status categ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4), 353-374. <https://doi.org/10.1007/bf02139239>
- McAdams, D. P. (1996). Personality, modernity, and the storied self: A contemporary framework for studying persons. *Psychological Inquiry, 7*(4), 295-321.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704_1
- Meeus, W. (2018). The identity status continuum revisited. *European Psychologist, 23*, 289-299. <https://doi.org/10.1027/1016-9040/a000339>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2023).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42*, 5447-5461. <https://doi.org/10.1007/s12144-021-01838-w>
- Park, S. W., Kim, S., Moon, H., & Cha, H. (2023).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 Korean adults. *Narrative Inquiry, 33*, 176-191. <https://doi.org/10.1075/ni.21047.par>
- Park, S. W., & Moon, H. (2022).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Current Psychology, 41*, 4066-4078. <https://doi.org/10.1007/s12144-020-00926-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ichins, M. L. (2004). The material values scale: Measurement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1), 209-219. <https://doi.org/10.1086/383436>
- Robitschek, C., Ashton, M. W., Spering, C. C., Geiger, N., Byers, D., Schotts, G. C., & Thoen, M. A. (201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II.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2), 274-287.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Vanderveren, E., Bogaerts, A., Claes, L., Luyckx, K., & Hermans, D. (2021). Narrative coherence of turning point memories: Associations with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psychological well-being, identity functioning,
and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Frontiers in
Psychology*, 12, 623903.
<https://doi.org/10.3389/fpsyg.2021.623903>

1 차원고접수 : 2023. 04. 13.

수정원고접수 : 2023. 05. 10.

최종게재결정 : 2023. 05. 10.

Developing a Short Form of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in Korean

Sun W. Park¹⁾

Hyemin Kim¹⁾

Joonbae Lee¹⁾²⁾

Hyun Moon¹⁾

¹⁾Korea University

²⁾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hort form of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 The 27-item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was developed to assess different aspects of identity through three subscales: Consolidated Identity, Disturbed Identity, and Lack of Identity. However, despite being used in many recent studies, the scale has been found to have problematic psychometric properties, and we decided to create a 12-item shortened scale by deleting problematic items. In three studies, we compared the model fit of the original scale and the shortened scale, and also compared the model fit between the two-factor model proposed by Lim et al. (2022) and the shortened three-factor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hortened three-factor scale had good model fit, and the three subscales correlated with variables such as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depression, and personality disorders in the direction predicted by theory.

Keywords: identity, self-identity, identity development,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부 록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문항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

1.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고 있다.
2.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3. 나는 항상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 나는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그래왔던 것과 같은 사람이다.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

1. 나는 내 자신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낸다.
2. 같이 있는 사람들에 따라 내 모습이 너무 달라서 어느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
3.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상황에 따라 관심사, 좋아하는 음악, 의상 등을 항상 바꾼다.
4.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변한다.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

1. 나는 내가 조각들이 잘 맞지 않는 퍼즐처럼 느껴진다.
2.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할 때,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내면이 비어있는 것 같다.
4.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